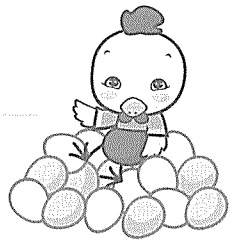
축산시황

양계소식



"올해 복경기 전망 우울"

양계협회 설문조사, 육계농가 반발 "나쁠 것"

육계농가들이 올해 복경기에 대해 비관적인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양계협회에 따르면 지난 제14회 전국 육계인 대회에 참석한 육계농가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총 98명 중 절반인 49명이 금년 복경기 전망이 나쁠 것이라고 답했다. 또 모르겠다는 답이 42.9%(42명), 좋을 것이라는 전망은 7.1%(7명)에 그쳐 대부분의 육계농가들이 올해 복경기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결과는 육용종계의 입식수수가 많아 소비가 늘더라도 공급량이 많은 점을 반영해 가격이 하락할 것으로 보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김동진 양계협회 홍보팀 팀장은 "현재 병아리 가격이 600원이 넘게 올라도 입식을 계속하고 있다"면서 "과잉생산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음에도 복경기를 앞두고 입식 열기는 식지않고 있다"고 말했다.

황일수 자조금사업팀장도 "올해 복경기는 지난해와 비교해 생산될 물량이 약 30%가량 많다"면서 "육종종계 입식 수수가 많은 것이 복경기 전망을 나쁘게 보는 요인이 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국농어민신문 이경희 기자 2006-7-3

양돈소식

양돈자조금 사업축소 우려

양돈자조금 납입률과 도축물량이 감소함에 따라 자칫 사업 축소가 우려돼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양돈자조금사무국에 따르면 올해 양돈자조금 납입현황은 지난 5월 고지금액 4억2007만 9600원에 납입금액 3억4582만1600원으로 82.3%의 납입률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양상은 지난해 12월 납입률 95.2%를 최고점으로 감소세를 보여 지난 1월 90.8%, 2월 91.8%, 3월 89.9%, 4월83.5%로 점차 감소하고 있는 추세다.

또한 자조금 조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도축물량도 올해 5월까지 540만 7399마리로 2004년 611만 7113마리와 2005년 564만 3418마리에 비해 급속한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 같은 추세라면 올해 양돈자조금 사업은 물론 내년 사업계획에도 차질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올해 양돈자조금 조성 예상금액은 106억 원이나 지금의 상황대로라면 4억 원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난 6월 13일 개최된 양돈자조금관리위 사업계획 담당 위원 회의에서 내년 자조금 예산규모를 약 120억으로 책정했으나 현재의 추세로 봤을 때 조정이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양돈자조금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계획달성을 위해서는 자조금 재원 조성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현재 거론되고 있는 재원 조성 방법으로는 농가거출금의 상향조정이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종돈업계의 자조금 거출확대 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농가거출금의 상향조정은 양돈농가들의 설득작업이 선행되어야 하며 종돈장으로의 거출금 확대는 현재의 수납기관 체계로는 거출이 힘들어 여전히 난제로 남아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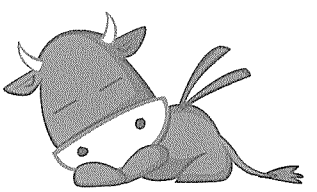
이러한 상황들을 종합해 볼 때 결국 수납기관인 도축장에서 유용한 자조금의 수납과 미납 양돈농가들의 자조금 참여가 거출률 상승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지목되고 있다.

결국 도축장을 관리하는 시 · 군 담당 공무원들의 자조금 거출에 대한 적극적인 업무협조와 함께 도축장들은 자조금 미납 농가의 공개를 통해 지역 대의원들의 설득과 홍보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양돈자조금 사무국의 관계자는 "3년차를 맞이한 양돈자조금이 초기의 홍보부족 이유로 자조금 수납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 핑계에 불과하다"며 "이제는 산업의 발전을 위한 관련 기관과 산업당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농수축산신문 김영민 기자(ymkim@aflnews.co.kr) 2006-7-12

한우소식



한우자조금 도입 1년 평가

한우자조금 도입 1년을 맞아 거출률이 90%를 육박해 한우자조금이 성공적 안착을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한우자조금 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5월 거출률은 경북과 제주, 서울지역이 100%를 달성한 것을 비롯해 전국 평균 89.7%의 거출률을 기록했다.

이 같은 한우자조금 거출률은 기대이하의 거출률을 보이던 전남 · 북과 충남지역의 거출률이 크게 상승해 지역별 편차를 줄인데 따른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실제 전남 · 북 거출률은 전북 77%, 전남 62.4%로 평균치에 못 미치고 있지만 50%를 밑돌던 지난해와 비교해 빠르게 거출률이 상승하고 있다.

또 10% 내외에 불과하던 충남지역 거출률이 올 들어 급상승하면서 79.1%에 달하는 점도 한우자조금의 성공안착을 가져왔다는 진단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충남지역 한우 도축물량의 35%를 차지하는 홍주미트(주)와 전국한우협회 충남 도지회 간의 한우자조금 완전거출을 약속하는 협약식 직후부터 거출률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우자조금 사무국은 "아직 일부지역은 평균 거출률을 밑돌고 있다"며 "한우협회 도지회와 지부별 홍보활동과 자조금 사업이 진행되면서 자조금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인식이 높아져 거출률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가 임박해지면서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한우산업 보호를 위한 한우자조금 역할에 대한 한우농가들의 기대감도 거출률 상승을 가져온다는 진단이다.

실제 한우자조금 거출률은 지난해 연말 76%에서 올해 1월 77.2%, 2월 78.9%, 3월 81.5%, 4월 83.0%, 5월 89.7% 등으로 계속 높아지고 있어 90% 달성이 어렵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한우자조금 거출이 순풍을 달면서 한우자조금 사업도 활기를 띠고 있다. 특히 한우고기 소비촉진과 유통 투명화 부문에서 한우자조금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 가운데 한우 유통 투명화를 위한 한우사랑 유통감시단의 활동이 큰 성과를 보이고 있다. 지난해 10월 발대식을 가진 '한우사랑 유통감시단' 활동이 올해부터 본격화되면서 원산지 표시위반 및 미표시, 증명서 미비 등의 감시에 나서 쇠고기 건전 유통을 실현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구성된 한우사랑 유통감시단은 육우와 한우를 혼합해 소비자에게 한우로 판매해 부당이익을 취한 식육업소를 적발해 고발 조치하는 등 쇠고기 유통투명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황엽 한우자조금관리위 사무국장은 "유통감시단은 한우자조금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며 "감시단 활동은 위반업소를 적발하기 보다는 예방차원과 한우만이 한우로 팔리는 제대로 된 쇠고기 유통질서를 확립하는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우사랑 유통감시단은 소비자단체와 한우협회가 선정한 27명의 유통감시원과 보조요원으로 구성돼 지난해 10월 18일 발대식을 갖고 전국에서 감시활동에 나서고 있다.

특히 감시단은 그동안 운영되온 명예감시원과 달리 한우자조금을 통해 장비와 활동비 등을 지급받고 감시단원 1명당 1명의 보조요원이 같이 활동하고 있다. 또 시 · 군 농산물 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매월 10회 이상 쇠고기 유통 감시활동 및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농수축산신문 김진삼 기자

낙농소식

낙농체험 인기최고… 올 체험자 벌써 5,000명

내년 예약 1,700명 달해

소비자들이 직접 젖소에서 우유를 짜고, 우유 아이스크림 등을 만들어보는 낙농체험이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낙농진흥회에 따르면 지난 4월8일~ 6월14일 낙농체험 목장을 방문한 소비자는 모두 5,000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8월 말부터 시작될 추계 낙농체험 예상인원 7,000명을 포함하면 올해 낙농체험 참가인원은 총 1만2,000명. 이는 낙농체험을 처음 시작한 2004년의 참가인원 350명(2005년은 2,200명)과 비교했을 때 불과 2년 만에 34배나 증가한 수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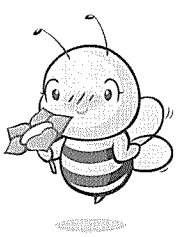
특히 낙농진흥회에서 운영 중인 아이러브밀크(ilovemilk.or.kr) 홈페이지에는 2007년도 낙농체험 참가 예약자가 벌써 1,700명을 넘어서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얻고 있다.

문진섭 체험목장운영협의회장은 "젖소를 직접 만져보고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자녀를 둔 가족 단위의 낙농체험 참가자들이 크게 늘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유와 낙농산업을 알리는 데도 톡톡히 한몫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낙농진흥회는 19일 충남 당진에서 올해 춘계 낙농체험을 마감하는 낙농체험목장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개선사항 등을 논의했다.

농민신문 한재희 기자 hanj@nongmin.com 2006-06-26

양봉소식



"정확한 실태 파악하고 밀원수 조성 서둘러야"

6월30일 오후 서울 남산. 군락을 이루고 있는 대다수 아카시나무의 잎이 누렇게 변한데다 떨어진 잎들이 바닥 여기저기에 수북이 쌓여 있어 때 아닌 가을의 풍경을 연출하고

있었다.

조상균 한국양봉농협 조합장은 "이런 현상은 3년 전 경북지역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최근 몇년 사이 전국에서 나타나고 있다"면서 "더군다나 정확한 원인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아카시나무 잎이 누렇게 변하는 황화현상이 전국으로 확산, 양봉농가에 비상이 걸렸다.

특히 아카시나무의 경우 전체 벌꿀 생산량의 70~80%를 차지하고 있지만 뚜렷한 방지대책은 없어 농가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관련 농가들은 2004년 대흉작에 이어 지난해와 올해 작황이 예년의 절반 수준에 머문 것도 이 영향이 크다며 정부에서 적극 나서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다.

산림청은 아카시나무의 황화현상이 병해충에 의한 것이 아니라 나무의 고령화에 따른 것으로 진단하고 있다. 대부분의 아카시나무가 60~70년대 연료용으로 심은 것으로 40여년의 세월이 지나면서 전반적으로 쇠퇴하는 과정 중에 있다는 것. 하지만 농가 및 관련단체들은 고령화 원인에 의문을 제기하며 정부의 정확한 실태조사를 촉구했다. 최규칠 한국양봉협회 사무총장은 "아카시혹파리가 들어온 시점에 황화현상이 발생한 것과 5년 수령의 아카시나무에서도 같은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면서 "그동안 정부가 실태파악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지 않은 것 같다"고 성토했다.

농가들은 정확한 실태조사와 함께 수종 교체시 양봉농가에 도움이 되는 밀원수를 조성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조상균 조합장은 "양봉산업이 붕괴되면 27만 여명에 달하는 과수 · 화훼농가도 큰 피해를 보게된다"면서 "국유지와 공유지 등지의 나무를 교체할 때 밀원수 뿐만 아니라 목재로서의 가치가충분한 음나무 · 헛개나무 등을 의무적으로 심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농민신문 류호천 기자 fortune@nongmin.com 2006-07-05

양록소식

우수사슴 선발대회개최

녹용생산성 및 품질이 우수한 우수 혈통을 발굴, 개량에 활용하고, 사슴사육 농가의 개량의지를 고취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제고에 목적을 하는 우수사슴 선발대회가 개최된다. 오는 27일 서울 국제전자센터 12층에서 열릴 우수사슴 선발대회의 참가신청 및 현장심사는 지난 15일 마감했다. 출품녹용은 일반 참관인 출품녹용 관람과 참관인 선정 최우수 투표로 시상을 한다. 또한 양록관련산업(사료, 약품, 기자재 등)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수의축산신문 2006-07-18